

생명을 살리는 색깔 마음을 다독이는 색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알록달록 색깔을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알록달록 물드는 기분이다.

색깔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비롯해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다.

실제로 색은 눈과 호흡 기관, 피부를 통해 신체에 흡수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학적으로도 색채치료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요법이다.

예부터 알록달록 색깔을 보는 것으로 마음에 위안을 얻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했던 것.

빨강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다. 사랑의 색이다. 역동적인 색이다.

주황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고 경쾌하게 해 건강, 활력, 창의력, 기쁨, 자신감, 용기, 낙천성, 자발성, 삶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노랑은 기쁨과 밝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초록은 쾌활함과 숭고함이 섞여 있는 색으로 조용하고 신선한 자연의 이미지를 가진다.

파랑은 바다다. 파랑은 하늘이다. 파랑이 가지고 있는 힘은 숭고한 자연의 힘이다.

보라는 감수성을 조절하고 정신질환을 완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색깔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알록달록 색깔을 곁에 두자.



